

4/26/15

설교 제목: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21:15-19

(요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절관주** 요 12:33, 요 18:32, 빌 1:20, 벧후 1:14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 일까요?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호주머니에 돈은 없고 딸린 식구들 특별히 어린 자식들이 부모인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데 무능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때?

죽어야만 하는 병에 걸렸을 때 우선 아픈 것도 힘들지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누구의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 온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하며 애지중지해 기른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가, 죽마고우가 죽었을 때?

제가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이런 경우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답니다.

논문이 아니더라도 그 슬픔과 충격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남에게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거나 명예를 훼손 당했다면 분하고 속상해서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기가 막힌 심정일 것입니다.

이중 그 어느것이 더하다 덜하다 경중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자기 일로 당하다보면 한결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혔으며, 상대방도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죄책감과 자책감, 무너진 자존심 등등

여지껏 쌓아온 자아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저한테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호소라도 하겠지만 제 자신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호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풀고 싶은데 입밖에 내면 오히려 저만 몹쓸 사람으로 낙인 찍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속에만 담아 두고 끄끖거렸습니다.

그때 짓눌리는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하면서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시점부터 말을 시작함으로써 모든 화실을 상대방에게 돌리는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이 문제 제공자였으며 그 사실을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혼자 괴로와 하는 거지요.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오셔서 같이 식사를 마치신 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단둘이 나누신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지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전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굳이 그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라는 사도의 직함으로 포장된 네가 아닌 그냥 순전한 너 자신으로 돌아가 솔직하게 대답해 보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 즉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 등등 여기 같이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너는 이 사람들 즉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 등등 여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째로는 “너는 이것들 즉 갈릴리 바닷가에 매어 놓은 배나 잡은 물고기들, 다시말해 사람들이 소유하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말 성경에서 사용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꼭 사람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물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간신히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제 끝난 줄 알고 겨우 숨 좀 돌리고 나니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한시름 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또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지은 죄가 있어 좌불안석인데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나를 믿지 못하시니 자꾸 물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시려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시려고?

베드로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사실이 억울해서 따지시려고요?

아니면 베드로를 한번 따끔하게 혼내 주려고요?

그것도 아니면 베드로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 놓으시려고요?

여기에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씩이나 물어 보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 보기 원합니다.

1.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깊은 내면에 잠재해 있는 상처를 고집어내어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를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하는 때가 오자 배신을 때린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에서 여종에게 3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워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영과 육 모두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못된 짓거리를 옆에서 다 보고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손으로 떡을 건네 주시고 또 고기를 구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책망이라도 하시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떡과 고기를 구워 대접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몰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르긴해도 예수님이 먹으라고 건네 주시는 떡과 고기가 목에서 넘어갈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지 못하고 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떡과 고기를 굽느라고 피운 숯불을 보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에서 자신을 숨기고 무리들의 틈에 끼어 찌던 모닥불 생각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떠올리며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세번씩이나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따져 물으시는 것 같아 괴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전에 그토록 땡땡거리며 큰소리쳤던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모두 온데 간데 없고 무기력해져 한없이 초라해진 모습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한번도 아닌 세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든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 엄마 사랑해?” “응” “얼마만큼” “하늘 땅만큼”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묻는데는 한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베드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받으면서 가슴 속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계산에 의해 예수님을 냉정하게 버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시도 버리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가슴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베드로는 용기를 얻고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내면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온전히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는지 베드로의 남은 사역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에서나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다시는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더 이상 씩씩하거나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완전히 씻음 받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뿐인 인생을 멋지게 즐기며 살아보겠다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잘살아보겠다고, 멋지게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쳤건만 결국 남은 것은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내 젊음 바치고, 헛된 것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와 아픔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 2.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4 장 19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서 죄책감으로 가득찼으며 그로 인해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 받았던 사명도 다 내려놓아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죄스러워하는거 잘 알고 있다. 그 때 한순간의 실수로 네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나는 네가 마음 속 깊숙히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기에 너를 끝까지 믿는다.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 너에게 말했던 것 생각나니? 나는 그때의 약속대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것이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로서의 자격지심을 순간 날려버려 주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 하여금 그가 장차 당할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배려이셨습니다.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세번째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비로소 베드로의 장래의 일을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겁장이었고 비겁했고 비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것도 거꾸로 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고 무한 신뢰를 보내 주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했기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 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의 조건이 없는, 그치지 않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